

가주주 직업에 따른 연령별 가계재무구조의 분석*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Householder's Occupation and Age on the Financial Structures*

인천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활자원관리학과
교수 성영애

Major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University of Incheon

Associate Professor : Sung, Young-A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의 고찰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 householder's age as a proxy for the family life cycle stage variable and the householder's occupation on the household financial structures. Household financial structures are analyzed by the components of two financial statements(the income and expense statement and the balance sheet statement) and selected financial ratios. The data came from the 1998 Korean Household Panel Study. It was found that the age profiles of household finances such as household income, expenditure, savings and consumption rate, financial assets, real assets and home ownership, debt and net worth usually vary according the householder's occupation. The ratios of debt repayment and the liquidity ratios also vary in part as age changes for each occupational group.

주제어(Key Words): 가계재무구조(household financial structure), 가주주 직업(householder's occupation), 가주주 연령(householder's age), 수입지출상태(income and expenditure status), 자산부채상태(assets and debt status), 가계재무비율(financial ratio)

Corresponding Author: Young-Ae, Sung, Major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University of Incheon, 177 Dohwa-dong, Nam-gu, Incheon, Korea Tel : 82-32-770-8255 Fax : 82-32-770-8250 E-mail : sungya@incheon.ac.kr

* 본 연구는 2001년도 인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입니다.

I. 서론

가계재무설계는 현재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가계의 재무상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재무상태표를 이용하여 파악되는데, 하나는 일정기간 동안의 소득과 지출의 흐름을 파악하는 수입지출상태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소득과 지출의 흐름으로 인해 일정시점에서 가계가 보유하고 되는 자산 및 부채상태표이다(Garman & Forgue, 1994). 또한 재무상태표에 포함된 요인들간의 비율로 구성된 가계재무비율은 일반적인 가계의 경제상태를 알려주며, 미래 가계행동의 지침을 제공해준다(Prather, 1990; Lytton, Garman & Porter, 1991; DeVaney, 1994; 양정선, 1997; 최윤지·최현자, 1998). 재무상태를 알려주는 소득, 소비, 자산, 부채 및 가계재무비율의 결합은 가계의 독특한 재무구조를 형성한다.

가계의 재무구조는 가구주의 직업에 영향을 받는다. 가장 기본적으로 직업은 가계소득의 규모나 성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며 가계소득은 다시 가계의 소비패턴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국은 가계의 자산이나 부채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직업은 소득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가계의 소비선호도, 가계의 자산축적행동이나 부채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승신·김기욱·김경자·심영·정순화, 1996).

가족생애주기는 가계재무구조를 결정하는데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다.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주요한 가정경제활동이 다르기 때문에 가계의 재무구조도 변화한다. 개별가계의 입장에서는 생애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령에 따른 바람직한 가계재무구조를 모색하며 이것이 바로 가계재무설계의 목표이다. 미래의 바람직한 재무구조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그 연령에 도달한 가계의 상태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여 볼 수 있다. 가계재무설계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연령은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 고객의 특성이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재무구조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또한 연령에 따른 가계재무구조의 분석은

우리 나라 가계의 현재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계재무문제를 발견해내어 주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생애주기를 대변하는 가구주 연령에 따라 가계의 소득이나 소비수준, 저축이나 부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통합적인 자료가 부족하거나 자료가 있다하더라도 활용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특히 가구주의 직업에 따라 가계를 분류하여 각각의 가계의 유형에 따라 연령에 따른 가계재무의 변화양상을 파악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 직업에 따라 가계를 분류하여 각 유형의 가계재무구조가 가구주 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단기재무설계를 위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나라 가계의 현재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줌으로써 가계관련 복지정책의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1. 가계재무구조의 요소

소득, 소비지출, 자산 및 부채 등은 가계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가계의 복지를 나타내준다. 일정기간동안의 가계재무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는 가계소득과 소비지출이다. 또한 가계소득과 소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흑자의 규모, 또는 저축(또는 적자 및 부의 저축)을 통하여 유망적인 측면에서의 가계재무의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다. 가계소득은 가계복지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지표로 이용되어 왔는데, 가계소득에 따라 소비지출과 자산의 형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Palmer, Smeeding & Jencks, 1980).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 소득보다는 항상소득이나 비금전소득을 통해 생활이 유지되기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계복지의 수준은 소비를 통해 달성된다는 관점에서 소비지출의 중요성이 주장되기도 한다(Friedman, 1956; Modigliani & Brumberg, 1962, 문숙재·김선미·김연

정 1996에서 재인용).

일정시점에서의 가계재무상태는 가계자산과 부채를 통하여 평가될 수 있다. 과거 가계소득과 소비의 결과 축적된 자산이나 유산이야말로 가계복지를 측정하는데 중요한 지표이며, 특히 근로 및 사업소득이 줄어드는 노인가계의 경우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Upp, 1983; Torrey & Tauber, 1989; Radner, 1989 등). 또한 부채는 연령에 따른 소득과 지출의 차이를 메꾸어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부채로 인한 부담은 가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서 가계재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심영, 1993; 최현자, 1996).

또한 최근에는 소득, 소비, 자산, 부채간의 비율을 통하여 가계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며 가계재무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되고 있다(Prather, 1990; Lytton, Garman & Porter, 1991; DeVaney, 1994; 양정선, 1997; 최윤지·최현자, 1998; 배미경, 2001). 가계재무비율을 통하여 평가한 가계재무상태에 근거하여 새로운 자산 및 부채 포트폴리오 구성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무비율은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지 알려주는 소득대비소비비율, 긴급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알려주는 유동성비율, 부채로 인한 스트레스나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부채부담비율, 자산을 통한 성장성을 가늠하여 볼 수 있는 자본축적비율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최윤지·최현자, 1998).

이에 따라 각 가계의 수입지출구조와 자산부채구조, 재무비율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재무설계의 기초자료로서 미래행동을 위한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사회전반의 가계재무구조는 유사한 특성을 갖는 가계의 비교기준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사회전반의 가계복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계재무구조라 함은 소득과 소비지출을 분석하는 수입지출구조와 자산과 부채에 관한 자산상태를 분석하는 자산부채구조를 포함하며 일부 재무비율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2. 가구주 직업과 연령에 따른 가계재무구조에 관한 선행연구

가구주 연령은 가족생애주기를 대변해주는 변수로서 가계특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이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연령에 따른 소비지출구조의 변화는 매년 통계청의 가계도시연보에 제시되고 있다. 연령과 다른 가계특성의 변인을 결합하여 만든 가족생애주기변인에 따른 재무구조를 구성하는 요인의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도 있다. 노윤주(1996)는 도시 근로자 가계를 대상으로 가족생활주기별 소비지출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족생애주기별로 평균소비성향, 월평균 비목별 소비지출액과 소비지출 구성비가 변화함을 보여주었다. 양정선(1997)은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금융자산액, 실물자산액, 총자산액, 총부채액, 순자산액과 재무비율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실물자산액, 총자산액, 순자산액과 일부재무비율이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이은실·최현자(1998)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소비자포트폴리오의 구성요소, 보유수, 구성요소별 보유가구비율, 구성요소별 평균보유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고 나서 포트폴리오구성의 다양성이 생활주기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고 결론내렸다.

연령에 따른 점진적인 변화를 다룬다기 보다는 연령에 따라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로 이분하여 가계재무구조를 비교하는 연구가 있다(문숙재·김순미·김연정, 1996; 임정빈·김윤희, 2000; 양세정·성영애, 2001 등). 문숙재 등(1996)은 노인과 비노인가계의 총소득, 총지출, 총자산과 총부채를 통하여 재정상태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인가계는 비노인가계에 비해 가계소득이나 지출액이 더 낮다고 보고하였다. 임정빈·김윤희(2000)는 1980년부터 1998년 동안의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득구조, 소비지출액 및 구성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노인가계는 재산소득이 더욱 증가하였으며 소비지출의 증가는 비노인가계와 비슷한 수준임을 발견하였다. 양세정·성영애(2001)는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수입과 지출상태, 자산 및 부채상태의 세부적인 요

소들이 달라짐을 보여주었다.

직업은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생계수단이자 유사한 가치관과 소비생활양식을 갖는 사회계층을 형성하는 지표이다(최현자, 2000). 가구주 직업은 현재 소득, 미래소득 및 가족구성원의 기호나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나 봉급생활자는 일하는 동안 소득의 증가를 기대한다. 반면 비숙련 노동자는 소득이 불확실하고 불규칙에 장래소득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지출도 달라진다. 가계소득의 규모나 안정성은 가계의 저축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많이 저축을 할 수 있고, 소득이 안정적이면 소득이 불규칙한 가계보다 적은 비율을 저축한다(이승신 등, 1996).

따라서 직업은 가계재무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가구주 직업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행해진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최근에 가구주 직업에 따른 소비지출을 비교한 연구(최현자, 2000), 부채구조를 비교한 연구(성영애, 2000a),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가구의 재무비율을 비교한 연구(배미경, 2001)와 같이 가계재무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개별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또한 가계재무요소를 종합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여러 가지 직업군을 살펴본다기 보다는 도시가계와 농가를 비교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최현자, 1995). 가구주 직업과 연령에 따른 변화의 모습을 동시에 살펴본 연구에는 가계의 적정 소비선을 살펴본 연구(양연선·임정빈, 2000)와 연령에 따른 도시가계와 농촌가계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연구(성영애, 2000b)가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가구주 직업에 따라 소비지출, 소득, 부채, 자산, 재무비율 등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주 직업과 연령에 따른 가계재무구조에 관한 연구는 널리 수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직업, 연령, 가계재무의 다양한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가계재무구조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제시하여주지는 못하며, 가구주 직업에 따라 연령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와 용어정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갖는다.

<연구문제 1> 가구주 직업에 따른 가계재무구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가구주 직업에 따른 연령별 가계재무구조는 어떠한가?

가구주 직업은 본 연구의 분석자료인 한국가구패널조사에 근거하여 봉급생활자, 자영업 및 자유업종사자(이하 자영업자로 명명함), 농림수산업자 및 비정규직 종사자로 4분하였다.¹⁾

가구주가 직업이 없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계재무구조는 가계의 수입지출, 자산과 부채, 재무비율에 나타난 가계의 재정상태를 말한다. 가계의 수입지출상태는 월평균가계소득, 월평균생활비, 월평균가계저축, 월평균소비성향, 적자생활가계의 비율을 통하여 파악하였고, 자산부채상태는 금융자산보유액, 금융자산미보유가계의 비율, 실물자산보유액, 총자산보유액, 주택보유율, 부채보유율, 부채보유액, 순자산보유액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가계재무비율은 매우 다양하게 구해질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채와 소득중단과 같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비율만을 살펴보았다. 금융자산보유액으로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채상환능력¹, 총자산으로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채상환능력²라고 칭하였다. 소득중단에 대한 대비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유동성비율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총금융자산보유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직업분류는 통상의 직업분류와는 다르다.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농림수산업자, 비정규직종사자로 분류한 것은 직업과 고용상태가 혼합된 분류인데, 여러 선행연구에서 이 같은 분류를 직업으로 명명하고 있어 본 연구의 직업 분류로 이용하였다. 엄밀한 의미의 전문직이나 사무직, 생산직, 판매직과 같은 직업분류도 의미를 가지나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농림수산업자, 비정규직종사자라는 분류는 전자의 분류보다 가계소득의 안정성이나 지속성 등과 더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계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는데 적합한 분류가 될 수 있다.

액으로 생활을 몇 개월이나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유동성비율1과 금융자산 중 현금화가 더 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된 은행예금, 주식, 채권만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유동성비율2를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 재무비율 중 부채상환능력과 유동성비율만을 고찰한 이유는 유용한 재무비율이 많으나 일관성있게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지표는 매우 드문데 부채상환능력과 유동성지표는 그 수치가 주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명확하여 현시점에서 재무구조를 판단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여지며 가계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다.

2. 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실시한 1998년도 한국가구패널조사이다. 이 조사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6차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1998년도 자료는 6차 패널자료이다. 6차 자료의 표본은 조사원년인 1993년도에 다단계층화확률표본에 근거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일반가계에서 추출된 4547가계 중 6차 추적에 성공한 2,466가계와 이후 신규 진입한 202가계를 합한 총 2,468가계이다(대우경제연구소, 1999). 이중 가구주의 직업이 없는 경우와 부실기재된 가계, 극단값을 갖은 가계를 제외한 1,725가계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SPSS(Window 7.5)를 이용하여 빈도분포표, 평균, 백분율, χ^2 검증, 일원분산분석과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전체가계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41.9%가 봉급생활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자영업자의 비율이 31.8%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농림수산업자의 비율은 17.0%, 비정규직종사자의 비율은 9.3%였다. 92.9%의 가구주가 남성이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가구주의 비율이 40.9%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이하와 40대의 비율이 높았다. 과반수 이상이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역에 거주하였다. 4인 가족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구주 직업에 따라 가구주 성별, 교육수준, 연령, 거주지역, 가구원의 분포가 모두 달랐다.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비정규직종사자의 경우 높았으며,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농림수산업자의 경우 가장 낮은 편이었다. 가구주 연령분포를 보면 농림수산업자의 경우 60대 이상의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봉급생활자의 경우는 30대 이하가 절반에 이른다.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4인 가구인 경우가 가장 많으나 농림수산업자 가구의 경우는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가족과 대가족의 비중도 높았다.

IV. 연구결과

1. 가구주 직업에 따른 가계재무구조의 비교분석

가구주 직업에 따라 가계재무구조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먼저 가구주 직업유형별로 가계재무구조를 각각 살펴보고 직업에 따라 가계재무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였다.

1) 봉급생활자가계의 가계재무구조

1998년 봉급생활자가계의 가계소득은 월평균 207만원이고 월평균생활비는 164만원이며, 평균 44만원의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소득의 약 83.3%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급생활자가계 중 15.6%는 가계소득보다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 적자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급생활자가계는 평균적으로 금융자산을 1,675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계도 6.1%였다. 주택을 포함한 실물자산은 평균 7,577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의 비율은 58.2%였다.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포함한 총자산보유액은 평균 9,252만원이었다.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의 비율은 50.9%였으며,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가계	봉급생활자	자영업/자유업자	농림수산업자	비정규직종사자	차이검증
N		1,725	723	548	293	161	
%		100%	41.9	31.8	17.0	9.3	
가구주 성별	남성	92.9	96.0	95.6	90.4	74.5	$\chi^2 = 101.98^{***}$
	여성	7.1	4.0	4.4	9.6	25.5	
가구주 교육 수준	초	18.2	4.8	9.1	58.4	36.0	$\chi^2 = 611.57^{***}$
	중	15.8	10.0	18.6	19.5	25.6	
	고	40.9	45.0	49.5	18.8	33.5	
	대	25.2	40.2	22.8	3.4	5.0	
가구주 연령	30대이하	34.3	49.2	32.5	6.5	24.2	$\chi^2 = 448.74^{***}$
	40대	30.4	30.6	38.7	15.7	28.0	
	50대	19.5	15.4	19.0	29.4	22.4	
	60대이상	15.8	4.8	9.9	48.5	25.9	
	평균	46.1세	41.2세	45.1세	57.9세	50.1세	F = 193.42^{***}
거주 지역	서울	23.5	24.3	35.6	-	21.1	$\chi^2 = 248.65^{***}$
	광역시	24.2	29.0	23.4	8.9	33.5	
	기타	52.3	46.6	41.1	91.1	45.3	
가구원 수	1	3.9	2.8	2.4	6.8	9.3	$\chi^2 = 166.72^{***}$
	2	12.4	7.9	8.6	28.7	16.1	
	3	15.2	15.9	14.1	13.9	18.6	
	4	45.0	52.3	50.9	21.8	34.2	
	5	23.5	21.2	24.1	29.0	21.7	
	평균	3.8명	3.9명	4.0명	3.6명	3.5명	F = 41.38^{***}

*p<.5 **p<.01 ***p<.001

봉급생활자가계의 평균부채보유액은 695만원이었다. 총자산에서 부채보유액을 제외한 금액인 순자산보유액은 8,557만원으로 나타났다.

봉급생활자가계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부채상환능력과 유동성비율을 살펴보면,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부채상환능력1의 경우 71.5%는 부채상환능력1이 충분한 것(부채상환능력1 1.0초과)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자산보유액이 부채상환액의 10%도 되지 않는 가계도 10.2%를 차지하고 있었다.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실물자산을 이용하여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본 부채상환능력2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봉급생활자의 3%만이 부채보유액보다 총자산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금융자산만으로 생활을 어

는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유동성비율의 경우 봉급생활자가계는 소득이 중단되더라도 약 10.6개월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통 3개월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의 유동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봉급생활자가계의 69%정도만이 이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금융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유동성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보험, 사채, 계를 제외한 금융자산, 즉 은행예금, 주식, 채권을 갖고 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본 결과 평균 6.3개월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정도였다. 유동성이 0인 경우도 1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이하의 유동성을 갖는 경우까지 합하면 과반수가 넘어서고 있다.

<표 2> 가구주 직업에 따른 가계재무구조

		전체가계	봉급생활자	자영업/자유업자	농림수산업자	비정규직종사자	차이검증
N(%)		1725 (100.0%)	723 (41.9%)	548 (31.8%)	293 (17.0%)	161 (9.3%)	
수입 지출 상태	월평균가계소득(원)	182만 (166만)	2,07만 b	206만 b	111만 a	119만 a	F=97.77***
	월평균생활비(원)	148만 (114만)	164만 b	165만 b	105만 a	102만 a	F=74.65***
	월평균가계저축(원) ¹	34만 (25만)	44만 c	41만 c	6만 a	18만 b	F=36.57***
	월평균소비성향(%) ²	91.8% (85.0)	83.3% a	89.0% ab	115.6% c	96.6% b	F=24.72***
	적자생활가계비율(%) ³	28.3%	15.6%	27.2%	56.3%	38.5%	$\chi^2=178.94$ ***
자산 부채 상태	금융자산보유액(원)	1449만 (680만)	1675만 b	1714만 b	780만 a	744만 a	F=20.26***
	미보유가계비율(%)	15.3%	6.1%	13.7%	33.8%	28.6%	$\chi^2=147.60$ ***
	실물자산보유액(원)	8966만 (5500만)	7577만 b	1억900만 c	1억600만 c	5574만 a	F=14.24***
	총자산보유액(원) ⁴	1억400만 (6940만)	9252만 b	1억2600만 c	1억1400만 c	6318만 a	F=13.90***
	주택보유율(%)	67.0%	58.2%	64.2%	95.6%	64.0%	$\chi^2=135.86$ ***
	부채보유비율(%)	53.2%	50.9%	55.1%	63.8%	37.9%	$\chi^2=30.78$ ***
	부채보유액(원)	932만 (15만)	695만 a	1174만 b	1302만 b	502만 a	F=16.61***
재무 비율	순자산보유액(원) ⁵	9422만	8557만 b	1억1500만 c	1억100만 bc	5816만 a	F=10.66***
	부채상환능력 ¹⁶						
	0.1이하	21.3%	10.2%	21.2%	43.3%	31.1%	$\chi^2=151.59$ ***
	-1.0이하	17.6%	18.3%	18.4%	16.0%	14.3%	
	1.0초과	61.2%	71.5%	60.4%	40.6%	54.7%	
	부채상환능력 ²⁷						$\chi^2=4.60$
	1.0이하	4.0%	3.0%	4.0%	5.8%	5.0%	
유동성비율1(평균) ⁸	10.1개월 (5.2개월)	10.6개월 b	11.8개월 b	7.3개월 a	7.2개월 a	F=6.95***	
0개월	15.3	6.1	13.7	33.8	28.6	$\chi^2=151.00$ ***	
-3개월 이하	23.0	24.9	22.1	21.8	19.9		
3개월 초과	61.7	69.0	64.2	44.4	51.6		
유동성비율2(평균) ⁹	6.2개월 (1.9개월)	6.3개월 b	6.7개월 b	6.3개월 b	3.8개월 a	F=2.82***	
0개월	30.1	19.9	32.8	41.3	46.6	$\chi^2=78.83$ ***	
-3개월 이하	26.8	31.7	25.4	19.5	23.6		
3개월 초과	43.0	48.4	41.8	39.2	29.8		

*p<.05 **p<.01 ***p<.001

a,b,c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임

na.=not applicable 각셀중 20%이상의 예상빈도수가 5보다 적을 때 χ^2 검증방법은 의미가 없음

1. 월평균가계저축 = 월평균가계소득-월평균생활비
2. 월평균소비성향=(월평균생활비/월평균가계소득)*100
3. 적자생활가계비율 : 월평균가계소득보다 월평균생활비가 큰 가계의 비율
4. 총자산보유액 = 금융자산보유액+실물자산보유액
5. 순자산보유액 = 금융자산보유액-부채보유액
6. 부채상환능력1 = 금융자산보유액/부채보유액
7. 부채상환능력2 = 총자산보유액/부채보유액
8. 유동성비율1 = 금융자산보유액/월평균생활비
9. 유동성비율2 = (은행예금+주식+채권)/월평균생활비

2) 자영업 및 자영업종사자가계의 가계재무구조
자영업 및 자영업종사자가계(이하 자영업자가계)는 평균적으로 월가계소득은 206만원 정도이며 생활비는 165만원 정도로 평균소비성향은 약 89%였다. 한달 평균 41만원정도의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적자생활가계의 비율도 2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1,714만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금융자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계도 13.7%를 차지하고 있었다. 실물자산은 1억 900만원, 총자산보유액은 1억 2,60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자영업자가계의 64.2%정도는 자가를 보유하고 있었다. 자영업자가계의 평균부채보유액은 1,174만원이었는데,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의 비율은 55.1%였다. 평균순자산보유액은 1억 1,500만원이었다.

부채상환능력1의 분포를 살펴보면 1.0을 초과하는 가계는 60.4%이며 나머지 39.6%는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상환능력2가 없는 경우는 40%정도였다. 소득중단과 같은 사태에 직면하여 금융자산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한다면 약 11.8개월의 생활이 유지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행예금, 주식, 채권만 이용할 경우는 6.7개월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3) 농림수산업자가계의 가계재무구조

가구주가 농림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계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111만원정도였으며 월평균 생활비는 105만원이었다. 월평균 가계저축액은 6만원이었으나 월평균 소비성향은 100%를 초과한 115.6%에 이르렀다. 이는 적자가계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데, 농림수산업자가계의 과반수가 넘는 56.3%가 적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업자가계는 평균 780만원 정도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가계의 33.8%는 금융자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물자산보유액은 평균 1억 600만원이었으며 주택보유율은 95.6%에 이른다. 농

림수산업가계의 63.8%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전체평균 부채보유액은 1,302만원이었다. 평균 순자산보유액은 1억 100만원정도였다.

농림수산업자가계의 부채상환능력1을 살펴보면 금융자산보유액이 부채보유액의 10%이하인 가계의 비율은 43.3%, 금융자산보유액이 부채보유액보다 많은 가계의 비율은 40.6%였다. 총자산보유액이 부채보유액에 못 미치는 가계의 비율은 5.8%였다. 소득중단이라는 긴급상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주는 유동성비율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약 7.3개월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개월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가계의 비율은 44.4%정도였으며, 환금성이 큰 금융자산만을 가지고 측정한 유동성비율2를 보면 이 비율은 39.2%로 줄어들었다.

4) 비정규직종사자가계의 가계재무구조

비정규직종사자가계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약 119만원이었고 월평균 생활비는 약 102만원정도였다. 평균 18만원정도의 저축을 하고 있으며 평균소비성향은 96.6%정도였다. 적자생활가계의 비율은 38.5%정도였다.

평균 금융자산보유액은 744만원, 실물자산보유액은 5,574만원으로 총자산규모는 약 6,318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자산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는 가계의 비율도 28.6%에 이르며, 주택보유율은 약 64%정도였다.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의 비율은 37.9%였으며 비정규직종사자가계의 평균 부채보유액은 약 502만원, 순자산보유액은 5,816만원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종사자가계의 54.7%, 95%정도는 부채상환능력(1과 2)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을 갖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약 7.2개월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나, 과반수를 약간 넘는 51.6%만이 3개월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행예금, 주식, 채권만을 갖고는 약 3.8개월의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월 이상의 생활이 가능한 가계의 비율은 29.8%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가계재무구조의 직업간 비교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주 직업에 따른 가계 재무구조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주 직업에 따라 구분한 가계유형은 서로 다른 재무구조를 보여주었다. 즉, 수입지출상태와 자산부채상태, 재무비율을 포함한 모든 항목에 있어서 가구주 직업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1) 수입지출상태의 직업간 비교

수입지출상태는 전반적으로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가계가 유사하고, 농림수산업자가계와 비정규직종사자가계가 다소 유사한데, 전자가 후자보다 수입지출상태가 건전한 편이다. 봉급생활자가계와 자영업자가계가 월평균 가계소득, 생활비, 가계저축, 소비성향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농림수산업자가계와 비정규직종사자가계가 월평균 가계소득, 생활비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평균 가계소비성향이 농림수산업자가계가 가장 높은 것이 특징이다. 적자생활가계의 비율은 농림수산업자가계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정규직종사자, 자영업자, 봉급생활자가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자산부채상태의 직업간 비교

수입지출상태와는 달리 가구주 직업에 따른 자산부채상태는 봉급생활자가계가 자영업자가계와는 다른 측면이 많았다. 금융자산보유액이나 주택보유율은 봉급생활자가계와 자영업자가계가 유사한 듯하나 실물자산보유액이나 부채보유액 등의 자산부채상태에 있어서 자영업자가계는 오히려 농림수산업자가계와 유사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종사자가계의 자산부채구조는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 농림수산업자가계와는 대체로 다르며, 비정규직종사자가계의 자산부채상태가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구체적으로 자산부채상태를 비교하여 보면, 금융자산은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가계는 농림수산업자가계나 비정규직종사자가계보다 비교적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가계의 비율도 적은 편이다. 실물자산보유액과 총자산보유액은 자영업자와 농림수산업자가계가 비슷한 수

준으로 보유액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봉급생활자가 많았으며 비정규직종사자가계가 가장 적었다. 주택보유율은 농림수산업자가계가 가장 높았고,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종사자가계가 비슷했고 봉급생활자가계가 가장 낮았다. 가계부채는 자영업자와 농림수산업자가계가 유사한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봉급생활자와 비정규직종사자가계의 부채보유액보다 많은 편이었다. 그 결과 순자산규모는 자영업자가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림수산업자, 봉급생활자가계가 그 다음으로 많았고 비정규직종사자가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가계재무비율의 직업간 비교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부채상환능력1은 농림수산업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업자가계는 부채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보유액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종사자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그 다음으로 낮았는데, 이들은 부채보유액은 작으나 금융자산보유액도 작기 때문이다. 자영업자가계는 부채보유액은 큰 편이지만 금융자산보유액도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채상환능력1은 농림수산업자가계나 비정규직종사자가계보다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봉급생활자의 부채상환능력1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부채상환능력2의 경우도 통계적 검증은 할 수 없었지만 상대적으로 농림수산업자가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자산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평균기간(유동성비율1)은 봉급생활자가계와 자영업자가계가 유사한 수준이나 분포도를 살펴보면 봉급생활자보다 자영업자가계의 경우 유동성비율이 낮은 가계의 비중이 더 높았는데, 이는 금융자산의 보유액에 있어 큰 편차 때문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업자가계와 비정규직종사자가계의 경우도 평균기간은 유사하나 농림수산업자가계 중 유동성비율이 낮은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 특히 환금성이 큰 금융자산만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평균기간(유동성비율2)은 비정규직종사자가계가 매우 낮은 편

이었다. 반면 나머지 세집단의 평균기간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종사자, 농림수산업자, 자영업자, 봉급생활자가계의 순으로 유동성비율2가 낮은 가계의 비율이 더 커져 상대적으로 유동성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2. 가구주 직업에 따른 연령별 가계재무구조의 비교분석

1) 봉급생활자가계의 연령별 가계재무구조

봉급생활자가계의 가구주 연령에 따른 가계재무구조는 <표 3>과 같다. 봉급생활자가계의 수입지출 상태를 살펴보면 월평균 가계소득과 생활비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상했던 바대로 30대 이하나 60대 이상인 경우 40대-50대 보다 규모가 작았다. 월평균 가계저축액이나 소비성향은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봉급생활자 증적자생활을 하는 가계의 비율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져 60대 이상의 경우 적자생활가계의 비율이 31.4%나 되었다. 가계의 자산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노년기의 적자는 기대되는 바이나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가계의 비율이 20%로 60대에 가장 높은 것을 보았을 때 가구주가 퇴직한 후에는 문제가 더 클 것으로 보여진다.

가구주 연령에 따른 가계의 자산부채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Duncan의 다중범위검정결과에 의하면 금융자산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실물자산의 경우는 30대 이하의 경우 주택보유율도 상대적으로 낮고 자산보유액도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실물자산보유규모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채규모는 연령에 따른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부채보유가계의 비율도 연령이 증가하여도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60대 이상의 경우도 45.7%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봉급생활자가계의 부채상환능력1이나 부채상환능력2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중단되었을 경우 평균적으로 몇 개월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도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모든 금융자산을 이용한다면 평균 9-10개월 정도의 생활이 가능하며, 유동성이 큰 금융자산을 이용할 경우는 5-7개월 가량의 생활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봉급생활자가계의 경우 3개월 이하의 생활만이 가능한 가계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60대 이상 봉급생활자의 경우 소득중단이란 임시적이 것이 아니라 은퇴와 관련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2) 자영업 및 자유업종사자가계의 연령별 가계재무구조

자영업자가계의 가구주 연령에 따른 가계재무구조는 <표 4>에 요약하였다. 자영업자가계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40대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나 50대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유사한 수준이며 60대 이상의 경우 가장 낮았다. 월평균 생활비는 40-50대에 높게 나타나고 60대 이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가계저축규모나 월평균 소비성향은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자영업자가계의 경우도 적자생활을 하는 가계의 비율은 60대에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가계는 40대에 금융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의 평균금융자산보유액은 다른 연령과 비교할 때 적은 편은 아니나, 금융자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계의 비율이 29.6%나 되었다. 실물자산보유액은 30대에 가장 낮았으며 40대 이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사한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보유율에 있어서는 50대 이상의 경우가 매우 높았다. 부채의 경우는 연령이 낮을수록 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비율이 높았고, 연령에 따른 부채보유액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순자산보유액은 30대 이하가 가장 낮았고 40대 이상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부채상환능력1이나 부채상환능력2를 살펴보면 30대 이하의 가계와 60대 이상 가계 중에서 부채상환능력이 부족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는 부채상환능력1이, 30대 이하의

〈표 3〉 봉급생활자가계의 연령별 가계재무구조

		전체가계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이상	차이검증
N(%)		723 (100.0%)	356 (49.2%)	221 (30.6%)	111 (15.4%)	35 (4.8%)	
수입지출상태	월평균가계소득(원)	207만	194만 a	222만 b	231만 b	179만 a	F=7.93***
	월평균생활비(원)	164만	149만 a	179만 b	186만 b	140만 a	F=14.04***
	월평균가계저축(원) ¹	44만	45만	43만	45만	39만	F=.16
	월평균소비성향(%) ²	83.2%	80.1%	83.5%	92.3%	84.3%	F=2.14
	적자생활가계비율(%) ³	15.6%	12.6%	16.7%	18.0%	31.4%	$\chi^2=9.73^*$
자산부채상태	금융자산보유액(원)	1,675만 a	1,391만 a	2,069만 a	1,876만 a	1,441만	F=4.81**
	미보유가계비율(%)	6.1%	4.2%	6.8%	6.3%	20.0%	$\chi^2=14.24$
	실물자산보유액(원)	7,577만	5,432만 a	8,709만 b	9,272만 b	1억700만 b	F=11.69***
	총자산보유액(원) ⁴	9,252만	6,824만 a	1억1300만 b	1억2600만 b	1억100만 b	F=13.28***
	주택보유율(%)	58.2%	41.3%	67.9%	84.7%	85.7%	$\chi^2=93.25^{***}$
	부채보유비율(%)	50.9%	54.2%	49.3%	45.0%	45.7%	$\chi^2=3.68$
	부채보유액(원)	695만	656만	842만	597만	473만	F=1.50
	순자산보유액(원) ⁵	8,557만	6,168만 a	1억500만 b	1억2000만 b	9,676만 b	F=13.09***
재무비율	부채상환능력 ¹ ⁶						
	0.1이하	10.2%	8.1%	10.9%	11.7%	22.9%	$\chi^2=8.59$
	-1.0이하	18.3%	19.7%	17.2%	17.1%	14.3%	
	1.0초과	71.5%	72.2%	71.9%	71.2%	62.9%	
	부채상환능력 ² ⁷						
	1.0이하	3.0%	3.1%	3.6%	1.8%	2.9%	na.
	유동성비율1(평균) ⁸	10.6개월	10.1개월	11.6개월	10.4개월	9.9개월	F=.66
	0개월	6.1%	4.2%	6.8%	6.3%	20.0%	$\chi^2=20.01^{**}$
	-3개월 이하	24.9%	25.0%	22.2%	26.1%	37.1%	
	3개월 초과	69.0%	70.8%	71.0%	67.6%	42.9%	
유동성비율2(평균) ⁹	6.3개월	6.1개월	6.7개월	5.8개월	7.5개월	F=.58	
0개월	19.9%	18.5%	21.3%	18.9%	28.6%	$\chi^2=3.72$	
-3개월 이하	31.7%	33.1%	29.9%	29.7%	34.3%		
3개월 초과	48.4%	48.3%	48.9%	51.4%	37.1%		

*p<.05 **p<.01 ***p<.001

abc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임

na.=not applicable 각셀중 20%이상의 예상빈도수가 5보다 적을 때 χ^2 검증방법은 의미가 없음

1. 월평균가계저축 = 월평균가계소득-월평균생활비
2. 월평균소비성향=(월평균생활비/월평균가계소득)*100
3. 적자생활가계비율 : 월평균가계소득보다 월평균생활비가 큰 가계의 비율
4. 총자산보유액=금융자산보유액+실물자산보유액
5. 순자산보유액=금융자산보유액-부채보유액
6. 부채상환능력1=금융자산보유액/부채보유액
7. 부채상환능력2=총자산보유액/부채보유액
8. 유동성비율1=금융자산보유액/월평균생활비
9. 유동성비율2=(은행예금+주식+채권)/월평균생활비

〈표 4〉 자영업 및 자유업종사자가계의 연령별 가계재무구조

		전체가계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이상	차이검증
N(%)		548 (100.0%)	178 (32.5%)	212 (38.7%)	104 (19.0%)	54 (9.9%)	
수입지출상태	월평균가계소득(원)	206만	198만 a	230만 b	193만 ac	165만 c	F=6.38***
	월평균생활비(원)	165만	155만 ab	163만 c	181만 bc	135만 a	F=6.66***
	월평균가계저축(원) ¹	41만	43만	49만	29만	30만	F=2.05
	월평균소비성향(%) ²	89.0%	86.9%	86.2%	98.1%	90.0%	F=1.70
	적자생활가계비율(%) ³	27.2%	24.7%	24.5%	28.8%	42.6%	$\chi^2=7.92^*$
자산부채상태	금융자산보유액(원)	1,714만	1,550만 ab	2,152만 a	1,211만 b	1,504만 ab	F=3.78*
	미보유가계비율(%)	13.7%	11.2%	10.4%	16.3%	29.6%	$\chi^2=15.11^{**}$
	실물자산보유액(원)	1억900만	6,353만 a	1억2600만 b	1억5000만 b	1억1500만 b*	F=10.86**
	총자산보유액(원) ⁴	1억2600만	7,903만 a	1억4800만 b	1억6200만 b	1억3000만 b	F=10.03***
	주택보유율(%)	64.2%	48.3%	67.5%	79.8%	74.1%	$\chi^2=33.85^{***}$
	부채보유비율(%)	55.1%	62.9%	56.6%	51.0%	31.5%	$\chi^2=17.49^{**}$
	부채보유액(원)	1174만	1313만	1237만	998만	810만	F=1.33
	순자산보유액(원) ⁵	1억1500만	6,590만 a	1억3500만 b	1억5200만 b	1억2200만 b	F=10.75***
재무비율	부채상환능력1 ⁶						
	0.1이하	21.2%	19.1%	18.9%	23.1%	33.3%	$\chi^2=13.79^*$
	-1.0이하	18.4%	24.7%	17.5%	15.4%	7.4%	
	1.0초과	60.4%	56.2%	63.7%	61.5%	59.3%	
	부채상환능력2 ⁷						
	1.0이하	4.0%	7.3%	3.3%	1.0%	1.9%	na.
	유동성비율1(평균) ⁸	11.8개월	12.5개월	13.5개월	7.7개월	10.8개월	F=1.83
	0개월	13.7%	11.2%	10.4%	16.3%	29.6%	$\chi^2=15.94^*$
-3개월 이하	22.1%	24.7%	21.2%	21.2%	18.5%		
3개월 초과	64.2%	64.0%	68.4%	62.5%	51.9%		
유동성비율2(평균) ⁹	6.7개월	6.6개월	7.1개월	5.1개월	8.8개월	F=.91	
0개월	32.8%	32.6%	28.8%	35.6%	44.4%	$\chi^2=6.02$	
-3개월 이하	25.4%	27.5%	25.5%	24.0%	20.4%		
3개월 초과	41.8%	39.9%	45.8%	40.4%	35.2%		

*p<.05 **p<.01 ***p<.001

a,b,c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임

na.=not applicable 각셀중 20%이상의 예상빈도수가 5보다 적을 때 χ^2 검증방법은 의미가 없음

1. 월평균가계저축 = 월평균가계소득-월평균생활비

2. 월평균소비성향=(월평균생활비/월평균가계소득)*100

3. 적자생활가계비율 : 월평균가계소득보다 월평균생활비가 큰 가계의 비율

4. 총자산보유액 = 금융자산보유액+실물자산보유액

5. 순자산보유액 = 금융자산보유액-부채보유액

6. 부채상환능력1 = 금융자산보유액/부채보유액

7. 부채상환능력2 = 총자산보유액/부채보유액

8. 유동성비율1 = 금융자산보유액/월평균생활비

9. 유동성비율2 = (은행예금+주식+채권)/월평균생활비

경우는 부채상환능력2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경우는 금융자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유동성비율이 매우 낮은 가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농림수산업자가계의 연령별 가계재무구조

〈표 5〉는 농림수산업자가계의 가구주 연령에 따른 가계재무구조이다. 농림수산업자가계는 50대까지의 월평균 가계소득과 월평균 생활비의 수준은 유사한 수준이다. 60대 이상에 이르러 소득수준이 매우 낮아진다. 농림수산업자가계의 월평균 소비성향은 3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100%를 넘었다.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비성향이 더욱 높아지는데, 이는 소비수준이 높아서라기보다는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적자생활가계의 비율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60대 이상의 경우는 70.4%가 적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유형의 가계보다도 농림수산업종사자의 경우 60대 이상의 연령층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볼 때 농림수산업가계의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다.

농림수산업자가계의 금융자산보유액, 미보유가계의 비율, 실물자산보유액, 총자산보유액, 주택보유율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채보유비율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있으나 보유비율이 낮은 60대의 경우도 57%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농림수산업가계의 만성적인 부채문제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이다. 부채보유액은 40대 이하의 경우 2,500만원이 넘는다.

금융자산보유액이 낮은 농림수산업자가계의 부채상환능력1은 매우 낮은 편인데, 60대 이상의 경우는 부채상환능력1이 낮은 가계의 비율과 높은 가계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모두 높아서 60대내에서도 차이가 매우 큼을 보여주고 있다. 유동성비율의 경우도 60대 이상의 경우는 극단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4) 비정규직종사자가계의 연령별 가계재무구조
비정규직종사자 가계의 가구주 연령에 따른 가계

재무상태는 〈표 6〉과 같다. 비정규직종사자가계의 월평균 가계소득과 생활비수준은 60대 이상에 이르러 매우 낮아진다. 반면, 월평균 가계저축이나 소비성향은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으며 적자생활가계의 비율도 높은 편이기는 하나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자산부채상태를 살펴보면 부채보유비율을 제외하고는 연령에 따른 차이를 찾아볼 수 없었다. 30대 이하의 경우 부채를 보유하는 가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재무비율에 있어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5) 연령별 가계재무구조의 직업간 비교

〈표 3〉-〈표 6〉의 표를 바탕으로 〈그림 1〉-〈그림 3〉을 작성하여 가구주 직업에 따른 연령별 가계재무구조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연령별 수입지출상태의 직업간 비교

연령에 따른 월평균 가계소득은 절대적인 규모는 차이가 나지만 봉급생활자와 비정규직종사자가 50대에 최고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1). 반면 자영업자와 농림수산업자는 이보다 이른 40대에 가계소득이 제일 높은 경향을 보여준다. 이 경우도 절대적인 소득규모는 자영업자 가계가 더 높다. 월평균 생활비의 경우는 모든 직업유형에서 30-50대까지 약간의 증가를 하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거의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며 60대 이후 급격한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월평균 가계저축액은 봉급생활자의 경우는 연령에 관계없이 일정한 규모의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자영업자나 농림수산업자 가계의 경우는 젊었을 때보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종사자가계의 경우는 30대인 경우 저축을 가장 적게 하고 있으며 50대에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봉급생활자의 저축행동이 가장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으며 농림수산업자의 저축규모가 가장 적었다. 월평균 소비성향은 봉급생활자가 가장 낮고 농림수산업자가 가장 높았다.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비정규직종사자가계는 연령에 따른 소비성향이 비슷한 모습을 보

〈표 5〉 농림수산업자가계의 연령별 가계재무구조

		전체가계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이상	차이검증
N(%)		293 (100.0%)	19 (6.5%)	46 (15.7%)	86 (29.4%)	142 (48.5%)	
수입 지출 상태	월평균가계소득(원)	111만 a	150만 a	153만 a	133만 b	79만	F=12.82***
	월평균생활비(원)	105만 a	133만 a	137만 a	126만 b	78만	F=14.15***
	월평균가계저축(원) ¹	6만	17만	15만	7만	2만	F=1.91
	월평균소비성향(%) ²	115.6%	90.4%	116.4%	112.8%	120.5%	F=7.73
	적자생활가계비율(%) ³	56.3%	26.3%	37.0%	50.0%	70.4%	$\chi^2=26.84$ ***
자산부 채상 태	금융자산보유액(원)	780만	683만	1,154만	978만	552만	F=2.40
	미보유가계비율(%)	33.8%	15.8%	23.9%	34.9%	38.7%	F=6.35
	실물자산보유액(원)	1억600만	1억400만	1억3500만	1억2400만	8597만	F=2.15
	총자산보유액(원) ⁴	1억1400만	1억1000만	1억4700만	1억3400만	9149만	F=2.50
	주택보유율(%)	95.6%	84.2%	95.7%	95.3%	97.2%	$\chi^2=6.66$
	부채보유비율(%)	63.8%	94.7%	76.1%	61.6%	57.0%	$\chi^2=13.87$ **
	부채보유액(원)	1302만	2692만 a	2594만 a	1214만 b	751만 b	F=12.30***
	순자산보유액(원) ⁵	1억100만	8,351만	1억2100만	1억2200만	8399만	F=1.67
	부채상환능력 ¹ 0.1이하 -1.0이하 1.0초과	43.3% 16.1% 40.6%	31.6% 47.4% 21.1%	41.3% 26.1% 32.6%	41.9% 16.3% 41.9%	46.5% 8.5% 45.1%	$\chi^2=23.88$ **
재 무 비 율	부채상환능력 ² 1.0이하	5.8%	10.5%	6.5%	3.5%	6.3%	n.a.
	유동성비율1(평균) ⁸ 0개월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7.3개월 33.8% 21.8% 44.4%	6.5개월 15.8% 42.1% 42.1%	8.9개월 23.9% 34.8% 41.3%	7.1개월 34.9% 22.1% 43.0%	7.1개월 38.7% 14.8% 46.5%	F=2.25 $\chi^2=14.84$ *
	유동성비율2(평균) ⁹ 0개월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6.3개월 41.3% 19.5% 39.2%	5.0개월 42.1% 31.6% 26.3%	6.7개월 39.1% 30.4% 30.4%	6.4개월 43.0% 17.4% 39.5%	6.3개월 40.8% 15.5% 43.7%	F=0.08 $\chi^2=8.16$

*p<.05 **p<.01 ***p<.001

a,b,c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임

na.=not applicable 각셀중 20%이상의 예상빈도수가 5보다 적을 때 χ^2 검증방법은 의미가 없음

1. 월평균가계저축 = 월평균가계소득-월평균생활비
2. 월평균소비성향=(월평균생활비/월평균가계소득)*100
3. 적자생활가계비율 : 월평균가계소득보다 월평균생활비가 큰 가계의 비율
4. 총자산보유액=금융자산보유액+실물자산보유액
5. 순자산보유액=금융자산보유액-부채보유액
6. 부채상환능력1=금융자산보유액/부채보유액
7. 부채상환능력2=총자산보유액/부채보유액
8. 유동성비율1=금융자산보유액/월평균생활비
9. 유동성비율2=(은행예금+주식+채권)/월평균생활비

<표 6> 비정규직종사자가계의 연령별 가계재무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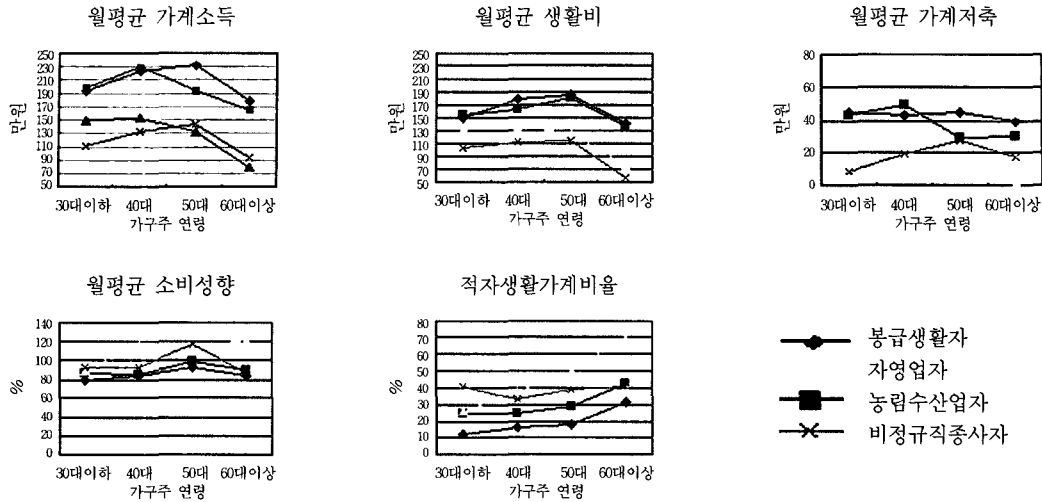
		전체가계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이상	차이검증
N(%)		161 (100.0%)	39 (24.2%)	45 (28.0%)	36 (22.4%)	41 (25.9%)	
수입지출상태	월평균가계소득(원)	119만	112만 ab	132만 a	142만 a	94만 b	F=2.93*
	월평균생활비(원)	102만	103만 a	113만 a	115만 a	56만 b	F=3.72*
	월평균가계저축(원) ¹	18만	9만	19만	27만	18만	F=1.09
	월평균소비성향(%) ²	96.6%	93.1%	93.0%	116.2%	86.9%	F=2.13
	적자생활가계비율(%) ³	38.5%	41.0%	33.3%	38.9%	41.5%	$\chi^2=7.7$
자산부채상태	금융자산보유액(원)	744만	630만	911만	1008만	438만	F=1.84
	미보유가계비율(%)	28.6%	17.9%	33.3%	27.8%	34.1%	$\chi^2=3.29$
	실물자산보유액(원)	5574만	4223만	5293만	7652만	5342만	F=1.42
	총자산보유액(원) ⁴	6318만	4853만	6205만	8660만	4853만	F=1.50
	주택보유율(%)	64.0%	56.4%	53.3%	77.8%	70.7%	$\chi^2=6.97$
	부채보유비율(%)	37.9%	59.0%	35.6%	27.8%	29.3%	$\chi^2=10.33^*$
	부채보유액(원)	502만	506만	498만	290만	688만	F=.69
	순자산보유액(원) ⁵	5816만	4346만	5707만	8369만	5093만	F=1.72
재무비율	부채상환능력 ¹⁶						
	0.1이하	31.1%	20.5%	35.6%	27.8%	39.0%	$\chi^2=6.76$
	-1.0이하	14.3%	23.1%	8.9%	11.1%	14.6%	
	1.0초과	54.3%	56.4%	55.6%	61.1%	46.3%	
	부채상환능력 ²⁷						
	1.0이하	5.0%	2.6%	11.1%	-	4.9%	na.
	유동성비율1(평균) ⁸	7.2개월	6.4개월	7.3개월	8.7개월	6.7개월	F=29
	0개월	28.6%	17.9%	33.3%	27.8%	34.1%	$\chi^2=7.04$
	-3개월 이하	19.9%	17.9%	20.0%	13.9%	26.8%	
3개월 초과	51.6%	64.1%	46.7%	58.3%	39.0%		
유동성비율2(평균) ⁹	3.8개월	2.4개월	2.8개월	6.5개월	3.8개월	F=2.29	
0개월	46.6%	46.2%	57.8%	33.3%	46.3%	$\chi^2=6.79$	
-3개월 이하	23.6%	25.6%	22.2%	22.2%	24.4%		
3개월 초과	29.8%	28.2%	20.0%	44.4%	29.3%		

*p<.05 **p<.01 ***p<.001

a,b,c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임

na.=not applicable 각셀중 20%이상의 예상빈도수가 5보다 적을 때 χ^2 검증방법은 의미가 없음

1. 월평균가계저축 = 월평균가계소득-월평균생활비
2. 월평균소비성향=(월평균생활비/월평균가계소득)*100
3. 적자생활가계비율 : 월평균가계소득보다 월평균생활비가 큰 가계의 비율
4. 총자산보유액 = 금융자산보유액+실물자산보유액
5. 순자산보유액 = 금융자산보유액-부채보유액
6. 부채상환능력1=금융자산보유액/부채보유액
7. 부채상환능력2=총자산보유액/부채보유액
8. 유동성비율1=금융자산보유액/월평균생활비
9. 유동성비율2=(은행예금+주식+채권)/월평균생활비



〈그림 1〉 가구주 직업에 따른 연령별 수입지출상태

여주면서 변화하고 있는데 50대의 소비성향이 가장 높았다. 반면 농림수산업자의 경우는 40대 이후에는 평균적으로 100%가 넘는 소비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농림수산업자의 경우 적자생활가계의 비율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비정규직 종사자의 경우는 30대에 적자생활가계의 비율이 가장 적었다. 자영업자나 봉급생활자가계의 경우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적자생활가계의 비율은 증가하나 그 비중은 농림수산업자가계보다는 적은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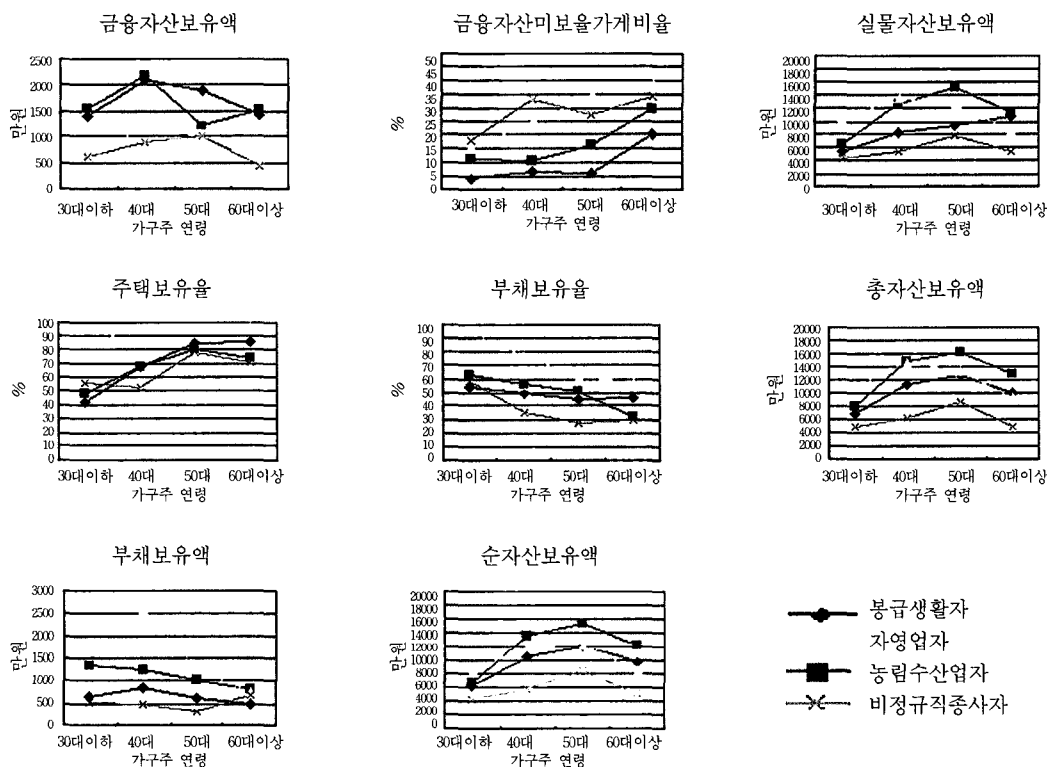
(2) 연령별 자산부채상태의 직업간 비교

가구주 직업에 따라 연령에 따른 자산부채상태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2). 먼저 금융자산 보유액은 봉급생활자와 농림수산업자가 40대에 가장 높은 모습을 보여주어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비정규직종사자의 경우는 50대에 가장 높은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연령에 따른 특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데 50대에 금융자산보유액이 가장 적었다. 금융자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계의 비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농림수산업자와 비정규직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비정규직종사자의 경우는 40대 이후에 그

비율이 높은 반면 다른 직업군의 경우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60대 이후 그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

실물자산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주택보유율은 농림수산업자의 경우 가장 높았다. 봉급생활자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보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실물자산보유규모도 봉급생활자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0대에 가장 높아 다른 직업군에 뒤지지 않는다. 반면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종사자의 경우 50대에 가장 높고, 농림수산업자의 경우는 40대에 실물자산보유액이 가장 크다.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합한 총자산보유액의 연령에 따른 변화도 이와 비슷하다.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의 비율은 연령이 감소함에 따라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봉급생활자의 변화모습이 가장 완만하고 농림수산업자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으며 변화모습도 가파른 편이었다. 부채보유액도 30-40대의 농림수산업자가 가장 그 규모가 컸다. 다른 직업군의 경우는 연령에 따라 부채규모가 다소 감소하였다. 총자산에서 부채보유액을 제외한 순자산은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비정규직종사자의 경우 50대에서, 농림수산업자의 경우는 40대에서 가장 높았는데, 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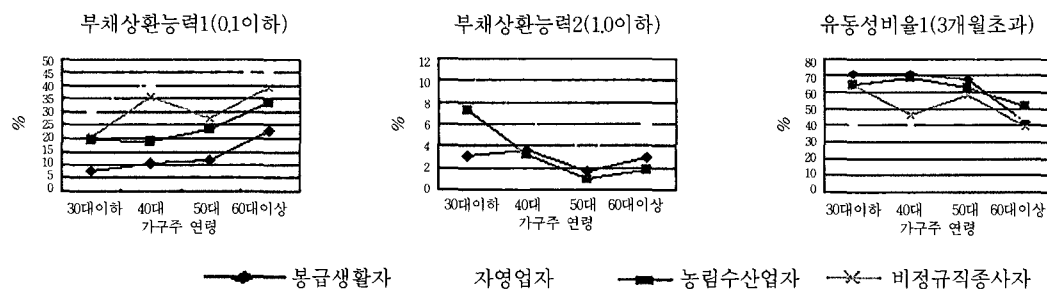
<그림 2> 가구주 직업에 따른 연령별 자산부채상태

적으로 자영업자가 순자산규모가 큰 편이었다.

(3) 연령별 가계재무비율의 직업간 비교

<그림 3>과 같이 재무비율의 추세를 살펴보면 부채상환능력1이 0.1보다 작은 가계의 비율은 농림수

산업자가계, 비정규직종사자, 자영업자, 봉급생활자의 순서로 높았는데 대체로 전연령대에서 같은 모습이다. 부채상환능력1이 떨어지는 가계의 비율은 비정규직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부채상환능력2



<그림 3> 가구주 직업에 따른 연령별재무비율

가 1.0보다 작은 가계의 비율은 농림수산업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다가 60대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봉급생활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연령에 따른 차이를 적게 보여주고 있다.

연령에 따른 유동성비율¹이 3개월을 초과하는 가계의 비율을 살펴보면 농림수산업자가계는 연령에 따라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 반면 다른 유형의 가계는 전반적으로 60대 이상의 비율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이는 중장년기의 농림수산업자가계의 경우도 유동성비율이 낮은 가계의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V. 결론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구주 직업에 따른 가계재무구조를 살펴본 결과 수입지출상태에 있어서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가계가 유사하고, 농림수산업자와 비정규직종사자가계가 다소 유사하며, 전자가 후자보다 수입지출상태가 건전한 편이었다. 자산부채상태의 경우는 비정규직종사자의 경우가 가장 상이하며 가장 열악한 편이었다. 가계 재무비율상 나타난 특성에 있어서는 부채상환능력은 농림수산업자가 가장 낮은 편이었고 유동성비율은 비정규직종사자가계가 가장 낮은 편이었다. 이상은 가구주의 직업은 가계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비정규직종사자구의 가계재무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비정규직종사자구는 소득의 비정규성과 더불어 저소득의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만큼 가계의 자산이나 부채구조도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점은 비정규종사자구에 대한 체계적인 재무교육이나 재무설계의 필요성이 더 큼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재무교육이나 재무설계는 저소득계층이나 열악한 재무구조를 갖는 가계보다는 고소득, 고자산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경향이 있어, 비정규직종사자가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농림수산업자가계의 경우 역시 가계재무상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기존의 재무교육이나 재

무설계는 주로 도시에 위치한 금융기관이라든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보급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농림수산업자가계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가구주 직업에 따라 연령별 재무구조를 살펴본 결과 가구주 직업에 따라 가계재무요소의 연령별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봉급생활자의 경우 대체적으로 월평균 가계소득은 50대에, 금융자산은 40대에, 실물자산은 60대에 그 규모가 가장 큰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봉급생활자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의 흐름과 관련된 것으로 노년으로 갈수록 금융자산이 실물자산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다른 직업군의 연령별 변화의 모습은 이와는 다르다. 봉급생활자가계나 자영업자가계의 경우는 연령별 재무구조의 변화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농림수산업자나 비정규직종사자가계의 경우는 연령별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종사자가계의 경우는 연령별 차이가 가계소득, 생활비, 부채보유비율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가계재무구조의 연령별 변화의 직업별 차이는 가계재무교육이나 재무설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재무설계시 고객의 중요특성으로서 가구주 직업과 연령은 쉽게 파악되는 특성이니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 고객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것은 가계재무문제나 목표, 행동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같은 직업을 갖고 같은 연령대에 있더라도 차이가 존재함이 나타났는데, 특히 직업과는 상관없이 노년기에 접할수록 가계재무구조상의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노후설계의 필요성과 노인복지문제는 가계복지정책의 중요한 이슈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노후설계는 가계재무설계의 가장 중요한 영역의 하나로서 앞으로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서로 다른 직업을 갖는 가계에 모두 해당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가구

주 직업과 연령만을 고려하여 가계재무상태를 기술적으로 분석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가지므로 다른 가계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맞벌이여부 등은 가계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특성을 고려함에 따른 사례수 부족문제로 인해 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자료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도에 조사된 자료로서 당시의 불안정한 경제적 상태를 반영할 것으로 보여져 다른 시기에 적용하는데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가장 최근에 조사된 전국적인 자료로서 이는 데이터 선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의 목적이 직업에 따른 연령별 재무구조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연령별 흐름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후속 자료의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좋은 비교대상이 되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 직업에 따른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인해 가구주가 직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여 실질적인 은퇴후의 재무구조는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을 갖는데, 이러한 제한점은 모든 횡단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지속적인 후속연구를 통하여 가구주 직업 및 연령에 따른 패턴의 일관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노윤주(1996). 도시 근로자가계의 가족생활주기별 소비지출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우경제연구소(1999). 대우패널 데이터 설명서.
 문숙재, 김순미, 김연정(1996).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223-235.
 배미경(2001). 재무비율분석을 이용한 가계 재정상태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9(9), 49-61.
 성영애(2000a). 가구주 직업이 가계의 부채구조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9(1), 599-610.
 성영애(2000b). 가정경제교육을 위한 가구주 연령별

가계재무구조의 분석. 인천대학교 교육대학교 논문집, 제4집, 223-234.
 심영(1993). 가계부채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4(2), 29-50.
 양세정, 성영애(2001). 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 19(1), 173-190.
 양연선, 임정빈(2000). 가구주 연령과 직업에 따른 가계의 적정소비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3), 53-70.
 양정선(1997). 산술적 저량과 재무비율 측정을 중심으로 한 가계의 재정상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기춘, 박명희, 윤정혜, 손상희, 김경자, 성영애(1998). 소비자재무설계론. 서울: 학현사.
 이승신, 김기욱, 김경자, 심영, 정순희(1996). 가계경제학. 서울: 학지사.
 이은실, 최현자(1998).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소비자 포트폴리오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111-122.
 임정빈, 김윤희(2000).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득·소비지출비교: 1982-1998-도시근로자 가계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4), 163-176.
 최윤지, 최현자(1998). 재무비율을 이용한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83-96.
 최현자(1995). 우리 나라 도시 근로자 가구와 농가의 가계수지와 저축 및 차용행태의 변화. 인하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문집, 2집, 187-207.
 최현자(1996). 가계의 신규부채수요 결정요인과 부채이용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3), 59-73.
 최현자(2000). 가구주의 직업유형에 따른 소비지출 양식의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67-183.
 Burbidge, J. B. & Robb, A. L. (1985). Evidence on wealth-age profiles in Canadian cross-section data.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XVIII(4), 854-875.

- DeVaney, S.A. (1994). The usefulness of financial ratios as predictors of household insolvency: To perspective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5, 5-24.
- Garman, E. T. & Fogue, R. E. (1994). *Personal Finance*(4th ed.). Boston, MA: Houghton Mifflin Co.
- Lytton, R.H., Garman, E.T. & Porter, N.M. (1991). How to use financial ratios when advising client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 24.
- Palmer, M. D., Smeeding, T. & Jencks, C. (1980). The uses and limits of income comparisons. In J. L. Palmer & I. V. Sawhill(Eds.). *The Vulnerable* (pp.9-27).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Press.
- Prather, C.G. (1990).The ratio analysis technique applied to personal financial statements: Development of household norm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 53-69.
- Radner, D. B. (1989). The wealth of the aged and nonaged, 1984. In R. E. Lipsey & H. S. Tice (Eds.). *The Measurement of Saving, Investment, and Wealth*(Studies in Income and Wealth, Vol. 52)(pp.645-684),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 Torrey, B. R. & Tauber, C. M. (1989). The importance of asset income among the elderly.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2(4), pp.443-450.
- Upp, M. (1983). Relative importance of various income sources of the aged, 1980. *Social Security Bulletin*, 46(1), 3-10.

(2002년 3월 28일 접수, 2002년 12월 20일 채택)